

제 182 호

부활 제 5 주일

1976. 5. 16.

숲 정 이

발행인	김 종 택
인쇄인	범 석 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5098)

● 감론 ●

성모님께 효성(孝誠)을 다 합시다

서 석 기 신부



신록이 무르익은 오월은 제일 좋은 시절- 성모의 성월입니다. 이 화창한 오월에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을 천주의 모친이시며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포근한 품에서 녹이지 않으시렵니까?

“여자는 연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는 사랑의 큰 힘을 말하고 있는 속담도 있지만, 모성애의 힘이 어떠한 것인가는 언어가 없는 동물세계에서도 얼마나 느낄 수 있습니까.

평소에 개를 무서워하던 암탉도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를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며, 어머니의 품에서 새근거리고 잠자는 아가의 모습은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합니까? 이 모두가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게 아껴주는 모성애의 보호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 교회는 성모님의 큰 모성애의 보호하에 있으니 무서워하고 두려워 할 것도 없으며, 어머니의 품에 고이 잠자는 아가마냥 성모님께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합시다.

“마리아가 낳으신 아들들 하느님은 그 형제들이 많은 신도들 가운데 말미로 삼으셨다”(로마8: 29)

마리아는 이 신도들을 낳아 기르시는데에 모성애로 협력 하신다(교회헌장 p.123 63행 끝)고 교회헌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잘못된 자녀를 매질해서 쫓아내고 대문을 걸지만 어머니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고린토13: 7) 사랑이신 어머니를 우리를 믿고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참고 견디시며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있는 한 외롭거나 불행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 모든 것을 품하고 그에게 전구하며 어머니의 자녀로 효성을 다 바칩시다.

“가톨릭 교회는 성신의 가르치심을 받아 마리아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로 받들며 그에게 자녀다운 효성을 바치는 것이다.”(교회헌장 p.117 53행 끝)

<삼례 전주교구 주임신부>

이 주일의 미사 해설

* 부활제 5주일 * (기도서 P. 295)

알렐루야, 하느님이 심으신 포도나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거기서 떨어진 가지들이라고 합니다. 뿌리에서 오는 수액으로 살고 포도를 맺는 가지들입니다. 믿음과 사랑만 있으면 꺾여나가지 않습니다.

이 성찬에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로부터 실컷 영양을 취하여, 선행의 열매를 푸짐하게 맺도록 노력합시다.

□제1독서(사도행전 9장26-31절 P. 286)

-길에서 주님을 뵈은 일을 이야기하다. -

신앙과 사랑의 사도바오로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처럼 많은 수고를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 또 없습니다. 박해자가 다마스코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뵈자 사람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제2독서(요한 1서 3장18-24절 P. 208)

-믿고 사랑하라는 것이 그분의 계명이다. -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귀의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만인을 사랑하셨듯이 신자도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랑할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아니라 행실로 실천하는 사랑 말입니다.

□복음(요한 15장1-8절 P. 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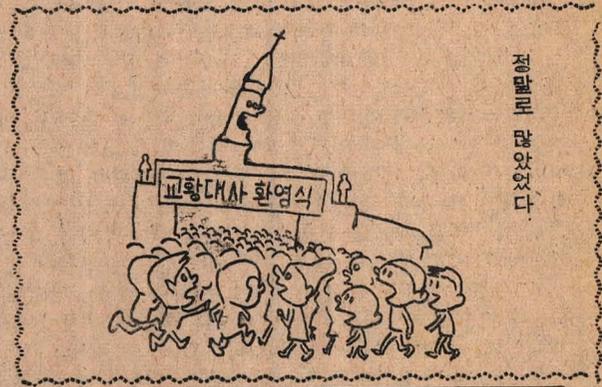
-내게 붙어 있는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느냐 떨어져 나가느냐가 생사문제입니다. 믿음으로 껴 붙어 있어야만 수액을 받아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영성체 후 묵상

그리스도는 하느님이 가꾸시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나무에서 떨어진 잔가지들에 비유됩니다. 믿음을 버리면 나무에서 꺾여나갑니다. 사랑이 배마를 때 가지는 시들고 마릅니다.

아울러 가지는 우리에게서 더욱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주께서 이같이 하셨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느님 사랑의 수액을 다른 가지에 전달하고, 선행의 포도열매를 알차게 맺어야 합니다.

숲 정 이 산책





이 이름을 부끄러워 하지 마시오

루이지 도세나 대주교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행하고 있는 이 성스러운 교회의 예전 속에는 아직도 부활의 기쁨이 가득차 있습니다. 부활축제가 바로 우리 믿음의 바탕이 되고 우리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축제로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과 죄악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부활의 신비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로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로 바로 이 신비위에 교회의 신앙이 세워져 있고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박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이 신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우리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본시 창조된 그 최후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로부터 비롯된 우리는 다시 그분의 품속으로 돌아가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불리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볼때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인간세계가 파괴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느님께 대한 순명을 거부함으로써 파괴된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인간이 하느님께 대한 반항으로 얻게 된 하늘과 땅의 깊이와 같은 깊은 구렁텅이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인간의 상황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상황이라고 어떻게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정의만을 앞세우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비가 승리를 걸으시게 하시어, 당신 모습대로 만드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즉 때가 차매, 성부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죄를 제의하고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나자렛의 예수이십니다. "이분은 모든것을 다 잘하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정의와 진리와 사랑의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선포하신 후, 임박한 십자가상의 죽음 앞에서 도끼까지 당신이 위임받으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역사적 사건일 뿐 아니라 우리 영진생활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의심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직 굳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확고한 신앙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영세에 받은 하느님의 선물인 은총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세성사로서 직접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였고, 우리는 '물과 성신으로' 다시 태어남으로서 사도 바오로가 말한대로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세를 받을때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일어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의식 속 깊숙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세를 받은 사람의 행동이 복음의 가르침과 같아지면서 모든 사람의 모습이 될 만큼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신자다운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조금도 주저치 말고, 더구나 모든 타협도 배제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언제 어디서나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속에 살아야 하고, 죄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가 인간의 나약으로 해서 영세에 발한 서약을 이행치 못하고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하느님과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되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확실히 쉬운것은 아닙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구기를 하고 희생을 바쳐야 하는지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감히 죄악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현세와 인간사회가 멸망으로 치달고 있다고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권이 유린되고 인간이 억압되는 것을 보고도 못본체 하는 소경이 되고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양심을 마비시키는 퇴폐풍조가 흥보수단을 타고 우리생활속 깊숙히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여 밑바닥까지 떨어질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런 현실에 대하여 통탄만하는 것에 끝이지 말고, 이런 악에 물들지 않으면서, 예수부활을 맞이하여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근자에 교황성부께서 "복음선포"(Evangelii Nunciandi)라는 교서에서 분명히 밝히시는대로 신자들은 모두 복음에 충실한 생활을 함으로써 사도가 되고 복음선포자가 되어야 할 때가 왔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빛으로 인간의 무지와 오류와 죄악에서 오는 어두움을 말끔히 씻어내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모든이가 신부가 되고 수녀가 되어 직접적으로 조교선에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자기가 고백하는 신앙 그대로 살면 그것으로 넉넉합니다.

우리는 "말은 날아가고, 모범은 썩어간다"는 말씀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현세와 악마의 질투를 거스려 성세에 받은 은총을 잘 보존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단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받게 하여 모든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따라가야 할 중대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까.

교황성부의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모범적 천주교 신자가 되십시오. 이 이름을 부끄러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착한 행실은 여러분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같이 참가시킬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께 대한 깊은 믿음, 그리고 그분의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사랑을 격려하면서, 저는 이 미사끝에 교황성부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교황강복을 드리겠습니다. (주한 교황 대사)

□ 교리 교실 ① □

성서를 사랑하자

김진석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부로부터 무수한 영향을 받게 된다. 그중에 독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만큼 지대한 것이다. 더구나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성서는 신앙의 지주가 되며, 성서 봉독에서 얻은 확신은 신앙에 대한 지식과 함께 생활의 규범이 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활자술이 발명되기 이전에 기록된 책으로 성서보다 많은 수사본(手寫本)을 가진 고대 문학 작품은 없으며, 활자술의 발명과 더불어 가장 많이 출판되고, 읽혀진 책은 동서를 막론하고 성서가 단연 우위를 차지한다. 1972년만 해도 성서는 1,500종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고 2억 1천 800만권이나 판매되었다고 한다. 성서가 고대 문학 작품보다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에 와서도 가장 많이 읽혀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성서는 인간의 「구원」에 관한 하느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기록으로 성령의 감도를 받은 책이다. 이러한 성서는 약 1200년에 걸쳐 만들어졌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성경 저자는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와 함께 기록하였다. 한마디로 성서는 전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인 동시에 인간의 말이다. 따라서 교회는 성서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순수하고, 완전하게 보전되도록 보살펴왔다. 신약이 구약 가운데 숨어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드러나도록 계획하신 하느님의 의도에 따라 가톨릭 교회에서는 잡다한 사본들중에서 73권(구약 46, 신약 27)을 경전(經典)으로 받아들여, 성전과 더불어 교회 신앙의 최고 규범으로 삼고있다. (393년과 397년 2차에 걸친 히포의 지방 주교회의와 제4차 카르타고 지방 주교 회의(419년)에서 구약과 신약 경전의 목록을 결정, 발표하고 1564년 4월 8일에 트리엔타노 공의회에서 똑같은 목록을 확인하여 결정, 발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마디로 성서란 하느님께서 구원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성서를 읽을 때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를 한낱 선물용이나 악세사리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신앙과 결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서 저자가 전달해 주는 하느님의 말씀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서를 사랑해야만 한다. 성서를 사랑하는데 실패하면 성서를 이해하는 데도 실패할 것이고, 결국엔 하느님을 사랑하는데도 실패할 것이다. "사실, 성서를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서 에로니모)이기 때문이다.

다음 주부터는 성서를 읽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각 성서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겠다. 아직 우리말 구약 성서가 출판되지 않았으므로 신약 성서부터 전주 교구 소속 학사님들이 릴레이 집필로 기고됨을 부연해 둔다.

요십이 (146) 김병호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 찾 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③ 5013
김원준(야코버)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팝니다

세느의상실

최춘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전주극장 동편입구

2-6219

신자들의 건강 센터

성심당한약방

이상범(필노리아노)

육교 밑 구북부배차장 옆

전화 ③ 4544

불러 주시면

언제라도

연탄

어름

신속,정확,진절
배달하겠습니다

이영희(다투)

①전주시 전동 성당 골목

(전화) ③ 8466

◎교우 여러분께 특별 봉사함
새롭고 저렴한 연탄보일러 온돌 안내
한국은수산업사
전남북 총판, 기술보급소

전주지점 전동지점 ②2143
다가 " ②4342
금암 " ②5614

이리시 인화동 2가 65-16 (전화 4940)
한동암 (모이세)

※각 지방 대리점 구할

돈 보스교의 제자들

Salesian 동문회

(在 全 北)

일시 : 1976년 5월 22일 오후 5시

장소 : 전주 덕진천주교회 (전북대앞)

회비 : 1,000원

연락처 : 아세아 약국 (고속버스 터미널옆)

전화 ③ 2423

★ 교형 여러분의 집 ★

현대 사진관

김낙준(요한)

전화 ③ 5289

주소 : 고사동 2가 역전오거리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교황대사 루이지 도세나 대주교님의 교구 공식 방문에 정성으로 환영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문정현 신부님 위한 헌금 누계 662,506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방저저 3회 재속형제회 청장년 팀(2,500원), 광활공소(2,000원), 전동익명(5,000원), 증동(10,000원), 중앙 서정태(2,000원), 이리 박베드로(3,000원), 황동본당(25,000원), 광주 나상태 신부(20,000원)
3. 사제 양성 후원회 헌금, 성의에 감사합니다. 광활공소...증도의 팔 모아(50,000원), 삼례 본당(173,000원)
4. 익산 나한자 존 공소 신축성금, 감사합니다. 월명동 최벨라렛(2,500원), 전동익명(5,000원)
5. 중·고등학생 연합회 회지(치명탐) 원고모집 : 5월 20일까지 마감, 내용 : 시, 수필, 콩트, 행사안내 등 보낼 곳 :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중·고등 연합회
6. 가톨릭 방송-5분 영상(밤을 잊은 그대에게-사색의 오솔길) 연사 범석규 신부
시해 방송에서 매일밤 11시 55분 부터 자정 사이에 방송이 나갑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7. 본당 신부님으로 부터 연락을 받은 고등학교 장학생은 23일(주일, 오후 5시) 전동성당 사제관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지참)
8.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 (17일<월>오후 8시 가톨릭센터) 신·구교 합동 기도회에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이대권
 ③3874 보좌 신부 김동준
 사도 회장 이상용

1. 성모회 월례회 : 공식 미사후
2. 옥의 행사 : 23일 오전 9시 본당에서 집합
수원지 시내버스 시간 (9시 15분, 9시 35분, 9시 55분, 10시 15분), 미사(11시, 상관 수원지).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신부 공아영
 사도 회장 조해철

1. 애령회 간부 월례회 : 오늘 10시 미사후
 2. 재속 형제회 치명자산에서 미사 : 23일 오전 12시
 3. 전원 참석 바랍니다.
 3. 중·고등학생회 임원회 : 16일 오후 2시 복자성당
 4. 성모의 밤 행사 : 29일(토) 오후 8시
 5. 신용협동조합 조합원께서는 23일까지 조합원 통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협동조합 감사 대비)
 6. 교구 은퇴 신부님 30일 12시에 초대 : 회비는 1,000원 이니 뜻있는 교우분께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7. 결혼후 교회에 입교하신 분들을 위한 혼인강복 6월 13일 공식 미사중 5월말까지 접수 바랍니다.
 8. 성당 신축 헌금 : 전동 박도식(1,000원)
 9. 성당 의자 헌금 : 익명(2,000원)
 10. 노송 신용협동조합 전화 신설 (③ 4834)
 11. 가정방문 : 18일~20일 중노 1가
- ◎ 구역장, 반장님께서서는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1. 성년회 춘계 야외미사 : 9시 30분 출발(정당리공소)
2. 애령회 성미, 성금 목표액 10만원 : 많은 협조 바랍니다.
누계 49,060원
3. 교무금 납부하여 본당 운영 도움입니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호

1. 옥의 행사 : 23일(주일), 효자동 신흥공업사 우측 산

- 에서 ① 미사 : 10시 30분,
② 준비물 : 성서책, 성가책, 묵주, 도시락.
③ 단원 및 협조단원, 모든 신자여러분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본당에 공식 미사(10시) 없음.
2. 성우회 : 옥의 행사와 같이함.
3. 반회합 : 18일(화) 제12반 임모니카씨때, 최계마 반장(태평동), 19일(수) 제13반 오이수 마리아씨때, 신방저저 반장(태평동), 20일(목) 제14반 윤 벨키울씨때, 김마리아 반장 (도토리골).
4. 성모의 밤 행사 : 30일(주일) 저녁, 조봉현(전신자) 꽃봉원, 축시, 신자들의 기도(자 신 단원제, 주일학교, 학생회).
5. 5월25일~26일까지 평일미사 없습니다.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박장춘

1. 오현택(가시미로) 신부님 환영식 : 17일 오후 8시
◎ 우리 다같이 환영합니다.
2. 신용협동조합 이사회 : 주일 공식 미사후
3. 성가정회 : 공식 미사후
4. 23일까지 견진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접수바람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한불섭
 사도 회장 양윤모

1. 문규현(바오로) 보좌 신부님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2. 꼬미시울 월례회 : 오후 1시반
3. 성경 연구 모임 : 월, 화, 수요일, 저녁 8시 30분.
대상-미혼 남녀(성경책 지참-현지에서라도 배부함)
4. 동대항 교회 경시자 명단 제출. ① 각 동 10명(남녀 구별없음), 토요일까지 ② 경시일자-다음주일 저녁 미사후
5. 예수 승천 야외미사 : 5월 30일(주일), 장소는 미정
6. 어린이 운동회 : 오늘 9시 30분 성실 운동장.
7. 대건 신용협동조합 신축 사무실 착공을 5월 14일에 했습니다.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제 1 지구	고김수신터 창계류인읍	학생회 월례회	27,840원 원원원원원	제 3 지구	주현동 창인동 황등	방저저 삼회, 미사시간 변경	56,660원
		사도회 상임 위원회				신용협동조합 월례회	52,275원
제 2 지구	대문울동 월명동 합동	예수 승천축일 활동미사 안내	7,700원 53,430원 32,261원 20,805원 14,600원	제 4 지구	중노송동 덕진 자서학동 전	성모회 월례회	193,520원
		전례 위원회				애령회 간부 월례회	14,200원
제 3 지구	고금여삼	성모회 월례회, 전례 위원회	3,650원 원원원원원	제 5·6 지구	무재 장진남 순입	성년회 춘계 야외미사	3,255원
		연합 사도회 주취 순회 교육				신용 협동조합 이사회	6,320원
		M. B. W 순회 교육	13,920원			꼬미시울 월례회	43,845원
		사도회 재 조직, 사도회장 재 선거				새 신부님 환영식	원원원원원
		사도회 월례회				성의있는 봉헌금을 바랍니다	6,525원
						학생회 월례회	15,265원
						사도회임원, 상가관리위원회회의	5,115원